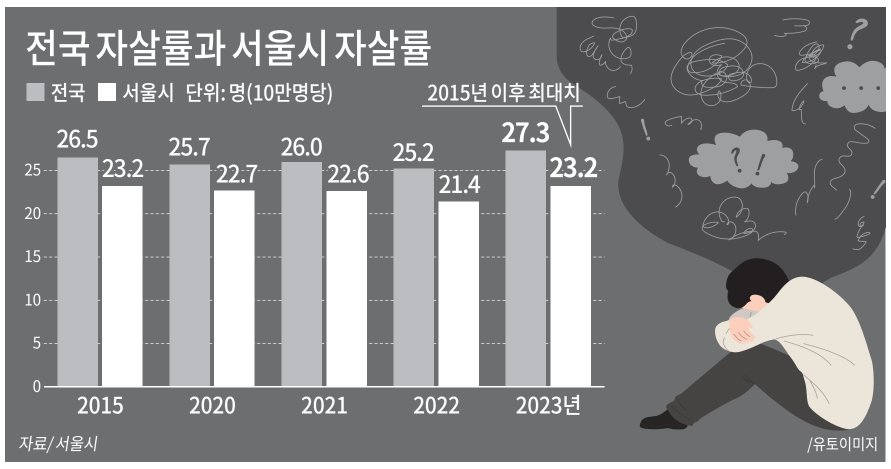
10만명 당 23명 자살… 서울시 "2030년까지 절반 줄일 것"

서울시민 자살률, 2015년 이후 최고치
민간의 전문 심리상담 등 연계·지원
지역 특성 고려 '통합 모델' 구축
시민참여 행사로 생명존중 공감 유도



지난해 서울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시민이 2100명을 넘어섰고, 자살 의·시도자는 37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서울시민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23.2명)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자 서울시가 '일상 마음 돌봄+지역 주도+시민 참여 중심'을 골자로 한 특단의 자살 예방 정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시민의 정신 건강을 선제적으로 지키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살 예방 대책과 자살이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생명 돌봄 활동 등의 주요 추진 과제를 시행해 오는 2030년까지 서울시민 자살률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28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시민들이 자살 고위험군으로 전환되기 전 일상 속에서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민간의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시민 누구나 주 1회, 50분 이상, 총 8주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지원 금액은 회당 8만원이다. 올해 2만명을 시작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27년부터는 매년 10만명에게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24시간 자살예방상담 마음이음 상담전화(1577-0199) 상담 인력도 현재 12명에서 2026년까지 30명으로 늘려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9개구, 11곳에서 운영중인 마음 상담소는 2026년까지 모든 자치구, 27개소로 확대한다. 정신 건강 전문 요원과 임상 심리 전문가들이 마음 건강에 대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민간 심리기관을 연계해준다.

시는 획일적인 사업을 지양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자살 예방 통합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1인가구 밀집지 등을 '동행촌 생명존중 마을(가칭)'로 지정하고 동네 병원, 상점, 통반장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 등의 생명 지킴이 역할을 하며 이웃을 돌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동네 병원에서는 1차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건강 설문'과 '자살 행동 척도 진단'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역 보건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빠른 심층 상담을 돕는다. 시는 정신 의료 기관 검진과 상담 비용을 연 최대 3회(2만~4만원) 지원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자살 예방 메시지, 수기 공모를 비롯해 영화제와 같은 시민 참여 행사를 진행해 생명 존중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가족·친구 등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빠르게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생명 지킴이'도 체계적으로 양성해 이웃에 지속적인 도움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그간 시가 추진해온 자살 예방 대책이 고위험군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사실은 서울시가 정신 건강이라든지 자살 문제를 주요 대책으로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오지 못했다"면서 "서울시민의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 교육청, 여러 민간, 지역 사회와 협력해 이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거고 꾸준하게 추진하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이 심하고 헬조선이어서 자살을 많이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정신 건강에 있어서 인식의 문제, 그리고 정신 건강 취약군에 대한 안전망이 부족한 것 등이 자살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강화하면 충분히 성과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올해 수능 서울 226개교서 11만명 응시

서울시교육청 '수능 세부 운영 계획'
재학생 53.6%, 졸업생 42.9% 차지

내달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울 11개 시험지구, 226교의 시험장에 시험장이 꾸려진다. 이날 총 11만734명의 수험생이 서울에서 올해 수능에 응시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5학년도 수능 세부 운영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서울에서만 226개 학교에 4218개 시험실이 마련된다. 서울 응시자는 총 11만734명으로, 이중 53.6%에 해당하는 5만9325명이 재학생이고, 졸업생은 4만7547명(42.9%)이 시험을 치른다. 검정고시 등 출신자는 총 3862명이다.

서울 전체 응시자 52.2%인 5만7841명은 남성, 47.8%인 5만2893명은 여성이다.

시험실 감독관 등 시험 관계요원 수는 1만9290명이다.

경증시각, 중증시각, 중증청각,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을 위한 시험편의제공시험장은 4개 학교에 마련된다.

지난해 이어 소년수형자 12명은 남부교도소 내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에 응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자료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수험생 예비소집 시 '수험생 유의사항'을 유인물로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감독관 교육도 사전에 반복해 실시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방송 및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지침을 보완하며 시험 관계요원 교육 시 관련 내용도 강화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올해부터 시험 관계요원 명찰에 이름을 삭제하고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등 감독관 보호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평택·여주 둘레길 걸으며 가을 느껴요"

경기도-관광公 '경기둘레길 걷기행사'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6일~27일까지 양일간 평택호 예술공원과 여주한강문화관에서 '2024 경기둘레길 걷기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한 일반 참가자와 평택 섶길, 여주 여강길 회원 등 총 600명이 참가했으며, 텀블러를 지참하여 식수대를 활용함으로써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 경기둘레길이 가진 친환경 여행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직접 실천했다.

참가자들은 평택호 예술공원과 한강문화관에 모여 등록 절차를 거친후 몸풀기 체조를 하고, 평택호반과 평택국제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경기둘레길 45코스' 및 남한강을 따라 이어진 '경기둘레길 35코스' 일부를 약 2시간 동안 걸으며 알록달록한 단풍 등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 코스는 평택과 여주의 민간단체가 오랫동안 가꾸어온 지역 도보길인 섶길, 여강길과 경기둘레길이 합쳐진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며, "특히 참가자 전원이 텀블러를 지참,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등 저탄소 친환경 여행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둘레길'은 경기도의 외곽을 따라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두발로 경험할 수 있는 장거리 걷기 여행길로 풋풋한 삶의 활기와 바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명항에서 시작하여 경기도 외곽을 한바퀴 돌아 원점 회귀하는 총 길이 860㎞의 순환 둘레길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삼육대, 자체 기술로 완성한 'SUBot' 론칭

(AI 챗봇)

2026년까지 'AI 통합교육 플랫폼' 구축

삼육대학교가 인공지능(AI) 챗봇 'SUBot(수봇)'을 개발해 론칭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외주 개발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적인 기술로 완성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는 2026까지 AI 튜터 기능 등을 담아 'AI 통합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삼육대에 따르면, SUBot은 삼육대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학 공식 캐릭터 '수야' 이미지를 클릭 혹은 터치하면 된다. 대학 요람, 규정집, 전화번호 등 홈페이지 데이터를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검색증강생성) 기술로 처리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24시간 맞춤형 응답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육대는 SUBot 개발 과정에서 여러 AI 모델을 검토했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적절한 개발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이 주요 이슈였다. 라마(LLama 3), 제미니(Gemini), 클로드(Claude) 등 다양한 AI 모델을 평가했으며, 성능, 정확성, 안정성, 신뢰성, 확장성, 유연성, 사용자 경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OpenAI의 챗GPT API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SUBot 개발은 기획처 AI대학혁신센터 주도로 이뤄졌다. 외주 개발이 아닌, 대학 자체 기술력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신동석 AI대학혁신센터장은 "AI 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외주 개발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이 자체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우리 대학은 AI 기술에 대한 실용적 관점에서의 깊이 있는 이해와 실질적인 적용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향후 다양한 AI 프로젝트에 핵심 자산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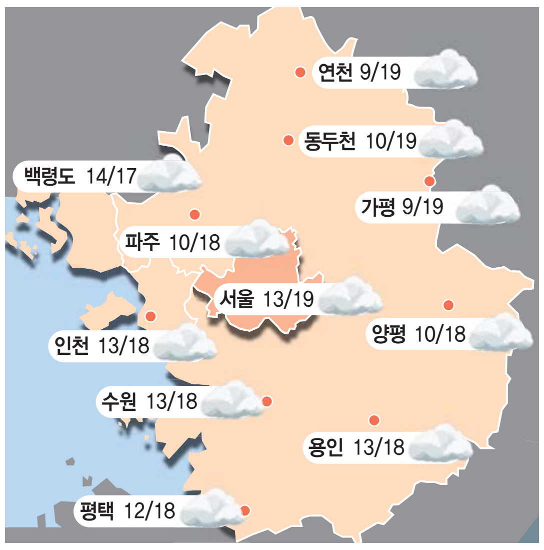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54 | 해짐 / 17:37

10월 29일(火)
음력 : 9월 27일

수도권 날씨
13~1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티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막말 유세 논란 트럼프… 美 대선 역풍 부나 /사진 뉴시스

▲UN안보리, 30일 '북한군 러 파병' 회의 소집

▲가자지구 휴전 논의 두 달 만에 재개

▲WSJ·WP "中 해커가 美 정치인 통화 음성 해킹"

▲日총선 자민당 참패… 이시바 책임론 '활활' /사진 뉴시스

▲'사면초가' 보잉, 20조원 자금조달 계획 내놓는다